민주 "공시가 6억~9억 주택도 재산세 0.05%p 감면"

'재산세 완화안' 당론 확정
44만호 평균 18만원 감면 혜택
서민·실수요자 LTV 10% p 상향
종부세·양도세는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의총에서 매듭짓지 못했다. 특위는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올렸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산세 완화안은 애초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특위는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또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10%포인트에서 10%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것이다. 우대 조건을 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됐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낮췄다.

민주당은 또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또한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총리실 및 정부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다.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하루 연기 오늘 발표

"여론조사 청년샘플 못채워"
8명 중 5명 본선 진출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28일로 하루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27일 기자단 알림을 통해 "오늘 오후 예정된 당 대표 경선 진출자 발표가 여론조사 완료가 늦어지는 관계로 내일 오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 대표 예선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윤영석 김웅 김은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선수·가나다순) 등 총 8명의 출마자 가운데 5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께 6·11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당원 조사는 끝났는데, 일반국민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젊은 세대(40대 미만) 샘플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기관 두 곳이 당원 1000명과 일반국민 1000명씩 총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일반국민의 범위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오전 8시 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결과 발표 후로 예상됐던 본경선 여론조사 규칙 논의도 하루 미뤄지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 이재명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 다음달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다음달 1일 광주에서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광주민주평화광장'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민주평화광장'은 민생중심 정치혁신과 평화·공정 실현을 위해 출범한 플랫폼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는다. 또 광주지역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소상공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출범식에서는 이 지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광주 상임대표인 민형배·이형석 의원이 인사말을 한다. 민주평화광장 공동 상임대표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이동주·이수진·박홍근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조오섭, 생활형 SOC·복합 R&D센터 광주 유치 일조

혁신지구 지정·전남대 캠퍼스혁신타운 조성 등 성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사업(1688억원) 등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생활형 SOC, 복합 R&D센터 등 기업 유치와 창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을 대거 광주로 유치하고 있다.

27일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로 지정된 국토부 공모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사업은 1688억원을 들여 기업혁신성장센터, 생활형 SOC, 복합 R&D센터와 주거문화복지 등이 결합된 창업혁신거점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50억원이며, 광주역 부지 혁신지구 내에 중소기업 창업생태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전남대 캠퍼스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젊은 창업자들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500억원이 투입되며, 전남대 내 유휴부지에 산학협력 공간 조성, 연구, 생산, 정주,생활, 문화 시설이 집적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게 된다.

광주의 대표적인 상습침수 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에서도 조 의원은 성과를 내고 있다. 행안부가 공모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대상지구 선정을 통해 조 의원은 120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북구 문흥동 일대 상습침수 피해 예방 위한 우수저류시설, 펌프장, 수문 등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생활형 SOC 사업으로 중흥 복합공공도서관 건립(102억 9000만원),우산동 복합체육센터 건립(90억원), 반다비 복합체육관 착공(132억3000만원)도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예산과 사업을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모이고 다양한 상상력이 실현되는 지역혁신역량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김승남 '공공·민간기업 공정한 채용 보장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7일 전체사업장에 거짓채용·채용강요 등을 근절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채용절차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구직자들이 부당한 채용절차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 규정만이라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구직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짓채용광고 금지하고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강요 금지, 혼인여부·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수집 금지도 포함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융 3억6천만원)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융 6억5천만원)

★4개동(월수익 3천) 년 4억 / 매가 52 (융 25억)

☑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항 10분 소요

010-4667-982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